

생명운동 연구모임 1차 회의 (정리)

- 일시 및 장소: 3월 29일(월) 오후 4시, 장충동 회의실
- 참석: 유정길, 김용우, 이정호, 주요섭, 이근행, 정규호, 임수진
- 주요 논의 내용 정리1)

1. 진단 : 변화된 흐름 속에서 역할 찾기

- 운동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기존에는 학생운동 진영에서 문제를 들고 나오고 시민, 노동 운동을 통해 확산하면 나중에 종교계에서 힘을 실어주고 정리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종교계에서 적극적으로 운동적 과제들을 제기하고 나머지는 침묵하거나 뒤따라오는 모습이다. 학생들은 안 움직이고 시민단체는 힘이 없고 종교 쪽만 남았다.

이런 변화된 운동판의 분위기를 인식하고 생명운동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 중도가 무너지고 좌우의 이념적 대립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다양성이 억압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생명운동 또한 좌우의 이분법적 이념의 틀에 포섭된 채 진보의 한 흐름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생명운동을 계급 문제로 바라보게 되면 왜소화 될 수밖에 없다.

생명운동은 새로운 운동 가치와 패러다임을 가져야 한다. 관련해서 기존과 차원이 다른 새로운 운동의 지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생명운동의 저변과 영역은 조용히 확장되어오고 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귀농인 수에서 확인되듯 시간이 지나면서 생명운동에 공감하고 지역에 뿌리내리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기존 운동처럼 이슈 화이팅을 하지 않아 눈에 띄지 않을 뿐이지 내적으로 영역이 확장, 확산되고 있는 유일한 운동 영역이 바로 생명운동이다.

문제는 이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연계해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들을 만들어나가는가이다. 보다 새로운 기획이 필요하다.

- 생명운동은 종교적 근원성과 정치적 모호함으로 인한 현실적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생명운동이 현실 속에서 현장의 삶과 긴밀하게 결합되지 못한 측면과 사회 정치적 문제에 대한 자기 발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좌우 대립 구도를 넘어선 제 3의 길을 제시하는 정치적 기획과 담론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 우리 현실에 적합한 전략과 구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한 새로운 기획과 함께 현실을 보다 명쾌하고 풀어 나갈 수 있는 담론 같은 것이 필요하다. 밥은 강이다, 밥 한 공기 덜어서 강을 살리자'와 같은 생명운동의 관점을 담은 4대강과 관련한 성명서 발표, 한끼 굶기를 통한 생명운동 기금 모으기, 인드라망 정치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의 조직

1) 연구위원님들의 여러 말씀들을 토대로 재정리 한 것입니다. 회의록 보다는 재구성된 문건의 성격이어서 말씀하신 핵심 요지가 제대로 담겼는지 걱정도 됩니다.

노선에 대한 준비 등 다양한 활동 과제들이 있을 수 있다.

2. 모색 : 생명운동이 풀어야 할 과제들

1) 생명운동의 정체성 확립

- 생명운동의 구도와 비전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생명운동 자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생명운동이란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보다 선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은 생명운동이 아니다' 같은 방식으로 생명운동의 정체성을 담은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홍운탁월(紅雲拓月)의 지혜.
- 나아가 생명운동은 국가와 시장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비전과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생명운동의 주요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영성'에 대해서도 보다 분명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2) 생명운동의 사회화

• 담론생산

- 생명운동의 사회화를 위한 담론 생산과 유통 방식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있어야 한다. 생명운동의 관점에서 운동적 임팩트가 있는 글쓰기, 번역 자원 활동가를 모집해서 녹색정치 강령 등 관련된 외국 자료들이 보다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녹색평론, 귀농통문 처럼 생명운동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에 대한 준비 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생명운동 무크지 등을 통해 생명운동의 미래에 대한 기획 내용을 담아서 소통하고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생명운동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핵심 가치와 기준들을 마련하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담론도 필요하다. 관련해서 생명운동의 생활문화를 꽃필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함께, 개정 생협법이 국가주의의 도그마로 편입될 우려도 있는 만큼 생명운동의 바탕이 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서 협동조합 일반법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 생명운동 선언

- 생명운동에 대해 '이렇게 하자'는 선언적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한살림 선언이 나온 지 20년이 되었는데 이제 생명운동에 대한 새로운 선언이 필요하다. 선언은 정리의 의미도 있지만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보다 분명하게 도드라지게 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선언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동안의 생명운동이 사상운동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생명의 정치, 생명의 경제, 생명의 교육, 생명의 문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 다만 선언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발표가 되면 이것을 계속 활용해 나감으로써 선언에 대한 권위를 스스로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 생명운동 교류의 장

- '한국사회포럼'처럼 생명운동 차원에서 핵심 의제들을 발굴하여 토론하고 서로 교류하며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논쟁과 화두를 던지는 장을 만들어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2박3일 또는 3박4일 정도 포럼을 통해 생명운동 각 부문에 대한 진단과 내용을 심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지역 차원에서도 생명운동 축제가 자주 열려서 함께 모여 서로의 믿음도 키우고 힘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한다. 생명평화순례를 통해 지역별 네트워크를 모색했듯이 생명평화 축제를 통해 지역들을 연결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관련해서 장소와 날짜의 상징성을 고려해서 충북 보은에서 보은취회 100주년을 맞아 생명운동 관에서 큰 잔치를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다. 생명운동 잔치 마당이 기획되면 어른들을 모셔서 적절한 역할을 드릴 수도 있을 것이다.

3) 생명운동의 조직화

• 통합적 전망과 기획

- 생명운동이 부문운동으로 비취지면 그 만큼 협소해지고 생명력은 질식된다. 또한 현안에 대한 사안별 대응에 치우칠 경우 운동의 에너지가 낭비될 수도 있다. 생명운동을 종합하고 중심을 잡아가는 기획이 필요하다.

- 농민운동, 생협운동 선배들이 앞서 열었던 생명운동은 오늘날 운동의 주체와 영역, 성격과 내용 측면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변화와 함께 생명운동 영역의 변화들을 함께 고려하는 기획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생명운동계의 어른들(법륜, 도법, 정양모 선생님 등)을 모시고 생명운동의 기풍을 만들어나가는 노력도 중요하다.

- 또한 생명운동 내의 사상운동 흐름과 조직운동, 대중운동 흐름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낼 필요가 있다. 정치 기획과 대중운동 기획을 분리해서 시도할 필요도 있다. 관련해서 다양하게 분화 발전해 온 생명운동 전반에 대한 종합 정리 작업이 필요하며, 이것이 있어야 다른 운동 영역과의 접점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에 기반한 실천

-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 커뮤니티에 기반한 고향의 전설을 만들어야 한다. 근래에 이야기되는 유목주의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 일 뿐 본질적으로는 고향, 지역, 마을을 근거지로 공감을 이루고 네트워킹을 해 나가야 한다. 관련해서 중앙이 아니라 지역에 기반한 삶의 이야기가 중요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지역적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 생명운동의 정치 지형은 이러한 지역적 실천을 네트워킹 함으로써 가능하다. 관련해서 생명운동의 정치적 기획으로서 자율과 자립, 자치에 기반한 '커뮤니티 파티'(community party)를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는 국가주의를 배제한 무지개 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명운동의 주체와 내용에 대한 고민을 통해 느슨한 대중조직이 아니라 대중들이 주체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을 지역에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 경계를 넘어선 연대

- 그동안 생명운동 차원에서 연대에 대한 모색들이 적지 않게 있어 왔다. 사상운동을 하는 어른들 중심의 네트워크들에서부터 생명민회, 무위당 기념사업회, 생명운동 대화모임, 촛불국면의 생명평화회의 등 생명운동 내에서 교류의 계기들이 계속 있어 왔으나 지금까지 의미

있게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사안별로 연대의 움직임들이 있으나 생명운동 영역을 포괄한 지속적인 실천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생명운동 내의 무력감으로 연결되는 측면도 있다.

- 생명평화결사, 귀농운동, 생협운동, 대안교육(초록교육연대, 생태유아공동체)등 다양한 영역의 흐름들을 모아내면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생명운동 내부에서부터 논의가 정리될 필요가 있다. 관련해서 환경활동가 대회에서 생명운동활동가 대회에 이르기까지 생명운동 내 많은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계기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나아가 생명운동이 또 다른 흐름인 민중운동, 시민사회운동과 만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3. 모임 운영 방안

- '생명운동연구모임'이 우리나라 생명운동의 역사와 위상, 역할을 정리하고 방향을 잡아나가는 데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 모임이 생명운동의 전략적 단위로서 역할을 했으면 하며, 주제를 가지고 창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만남의 장 역할을 했으면 한다.

4. 다음 연구모임(2차) 안내

- 일시: 4월 22일 오후 3시 - 23일 아침 (1박 2일)
- 장소: 한살림 5층 회의실, 숙박 장소는 추후 안내
- 논의: 생명운동과 관련한 준비된 이야기 나누기 (각자 A4 1-3장 정도 메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명운동의 정체성 (개념, 영역, 특성)· 생명운동의 등장과 흐름 (시대적 배경, 각 영역별 흐름과 변화들)· 생명운동에 대한 진단 (내부 모습 진단, 사회적 역할 평가)· 생명운동의 비전과 전략 (사상적 토대, 물질 토대, 비전과 전략)· 생명운동이 다루어야 할 핵심 과제들 (시대 인식, 주제, 내용과 형식) |
|--|